



# 불교대학을 찾아서

## ⑦ 봉선사 불교대학

경기도 광주에 사는 김금강 거사는 수요일 아침이 부산스럽다. 경기도 남양주에 있는 봉선사까지 불교대학 수업(오전 10~12시)을 들으러 가는 날이기 때문이다. "하면 할수록 재밌고 더 배우고 싶은데 졸업하면 어디서 더 공부할까 걱정"이라는 김 거사는 '경전강좌'에 등록하는 문제를 고민중이다. 경전강좌는 불교대학을 졸업한 사람들 가운데 경전공부를 더 하고 싶은 분들을 대상으로 올 3월 개강했다. "걸어서 힘들지 않느냐"는 질문에 김 거사는 "분당이나 성남에서 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뭘"이라고 말한다.

조계종 제25교구본사 봉선사(주지 일면)는 교종본찰이기 이전에 '교육불사' 도량을 자부한다. 조계종 신도기본교육법이 생기기 이전부터 기본 교육을 담당하는 교양대학(95년 개설)과 전문 교육기관인 불교대학(95년 개설)을 운영하고 있다. 경전강좌와 불경서당을 따로 개설하고 있다. 불경서당은 경전에 관심있는 사람들이면 누구나 입학할 수 있다.

봉선사 불교대학은 다른 불교대학과는 달리 경전 위주로 교과 과정이 짜여져 있는 게 특징이다. <천수경> <금강경> <선가귀감> <반야심경> <관음경> 등을 10개월 동안 공부한다. 봉선사가 전문 강사인 능엄화림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뛰어난 강사를 구하기 쉽기 때문이기도 하다. 8기

학생회장을 맡고 있는 박송담 거사는 "20여 년 동안 절에 다니면서 뚝도 모르고 <천수경>이나 <금강경>을 독송해 왔는데, 실생활을 들어가며 가르치니까 한 구절 한 구절의 의미가 새롭게 다가온다"고 말했다.

해마다 두 차례 있는 성지 순례도 남다른 데가 있다. 버스 타고 이동하는 시간도 교육 시간이다. 강사 스님들은 자료를 잔뜩 준비해 와 잠시도 쉬 틈을 주지 않는다. 올 4월 금산사와 미륵사지 성지 순례를 다녀온 뒤 8기생 150여 명은 우리 나라 미륵

### 경전위주 교육...천수경등 10개월간 공부 다양한 봉사활동, 배운것 실천에 자부심 경전강좌·불경서당 따로 개설 문호 개방

산양에 대해 마스터했다. 하지만 봉선사가 '오픈가는 교육본찰'임을 내세울 수 있는 것은 다양하고 차별화된 신도교육 과정 때문이 아니다. 오히려 교양대학이나 불교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이 배우는 데 그치지 않고 다양한 봉사활동을 통해 이를 실천한다는 데 긍지를 가지고 있다. 졸업생들은 신도회나 합창단 등 신도단체 활동에 열심인 것은 물론,



△매주 수요일 오전 10~12시 열리는 봉선사 불교대학은 경전 공부를 통해 부처님 가르침을 생활 속에 실천하는 데에 가장 중점을 둔다. 사진은 수업 중인 8기 학생들.

어린이집 등 복지시설에서 자원봉사를 마다하지 않는다. 사찰 봉사단을 꾸릴 때는 100여 명이 지원했을 정도다.

고등학교 때까지 성당에 다녔지만 지금은 신상 명세서 종교란에 당당히 '불교'라고 쓴다는 7기 졸업생 박원각(보살은 <천수경>)을 배우고 나서야 봉사가 남을 위

### 수업·법회준비·뒷정리 "너무 즐거운 일입니다" 8기생 이법륜화 보살



"불자 된 지 이제 1년도 안 된 새내기"라고 말하는 불교대학 8기생 이법륜화(35) 보살은 요즘 봉사활동 재미에 푹 빠져 산다. 수업 준비나 뒷정리는 물론 일요일에 열리는 어린이·군인 법회의 먹거리 준비, 신도회 사무실 청소도 법륜화 보살의 몫이다. 일요일에도 절을 찾아 일주된 건립 기와불사 접수라도 받아야 한다. 지난 해 교양대학을 졸업하고 나서부터 시작한 일이다. 법륜화 보살은 "절에서는 하루 종일 일해도 몸이 가뿐하다"고 말했다.

권형진 기자

우리 옆 동네 사원의 공터에는 날마다 자그만 시장이 열립니다. 아낙네들이 자루나 보따리를 이고 와서 길가에 펼쳐 놓는 물건들은 대부분 농산물입니다. 콩, 감자, 옥수수, 양파, 양배추, 파, 깨, 호박, 고추, 파, 도추, 가지, 호박잎, 열무 같은 것들입니다. 30 루피(약 450 원) 가지고 나가면 대어섯 식구 두 끼 먹을 국이여 천거리로 충분합니다.

길가 시장 한 귀퉁이에는 남의 가게 처마 밑에서 옥수수를 구워 파는 아낙네도 있습니다. 수북히 쌓인 옥수수 겹질 위에 두어 살 된 쌀을 얹혀 놓고, 아낙네는 솟이 된 장작불을 후후 불어가며 옥수수를 굽습니다. 매운 연기 때문에 아낙네의 눈은 빨갛고 가끔 눈물도 맺힙니다. 아낙네의 형편처럼 머리칼에는 재가 허영게 앉아 있습니다.

우기에 접어들어 카트만두는 시도 때도 없이 비가 옵니다. 비 오는 날에도 아낙네는 옥수수를 굽습니다. 어린 딸은 여전히 옥

### 시인 김홍성의 네 딸사는 이야기



#### <6> 옥수수 굽는 아낙

### 매운 연기 마셔가며 비오는 날도 구워 모진 가난 속에서도 웃음 잃지않는 심성

수수 겹질 위에 얹혀 놓고서 비 안 올 때보다 매운 연기가 더 많이 나는 솟불을 후후 불니다. 비 오는 날은 옥수수 굽는 냄새가 평소보다 더 구수하게 코를 자극하므로 옥수수가 잘 팔립니다. 그래서 아낙네는 비 오는 날일수록 더 열심히 솟불을 후후

불었다 불니다. 저도 비 오는 날 처음으로 구운 옥수수를 샀습니다. 두 개에 5 루피(약 75 원)였 습니다. 5 루피는 카트만두의 시내버스 요금입니다. 그리고 제일 좋은 네팔 담배 두 개피 값입니다. 저는 10 루피를 내고

다섯 개를 달라고 해 보았습니다. 아낙네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하나 더 달라고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로 하나 더 주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것보다 조금 작고, 까맣게 탄 데가 많은 것이었습니다.(그래도 그 옥수수가 제일 고소했습니다.)

그 얼마 후, 산책을 나갔다가 비가 올 듯 하늘이 컴컴해져서 서둘러 집으로 오는 길이었는데, 그 아낙네가 내 앞에서 걸어 오고 있었습니다. 커다란 옥수수 자루를 머리에 이고, 한 손에는 어린 딸의 손을 잡고, 다른 한 손에는 찢어놓은 천 조각을 들고 서 넘어질 듯 넘어질 듯 위태롭게 걸어 오고 있었습니다.

내가 너머스때(당신에게 귀의합니다) 하고 인사를 하자 그녀도 너머스때 하며 제게 웃어주었습니다. 조금 수줍은 표정이기는 했지만 분명하게 웃었습니다. 모진 가난을 겪으면서도 그렇게 웃을 수 있는 그녀 가슴이 부러웠습니다.

연중캠페인 - 나눔의 손잡기 운동  
**'후원합시다'**  
손녀·장애인 딸 뒷바라지 7순할머니

## "나 세상뜨면 누가..."

"내 앞에서 죽어라. 내 죽고 없으면 불쌍한 너는 가지밖에 더 되겠나?" 다운증후군을 앓고 있는 딸에게 조소연(74) 할머니가 내뱉는 한숨섞인 말이다. 부산 개금동의 영구임대아파트에 아이같은 딸 김윤자(30)씨와 나이는 어리지만 어른스런 손녀 혜진이(16)와 살고 있는 조소연 할머니. 95년, 이곳 영구 임대 아파트로 이사오면서 집객정은 멀었다고 해도 여섯 살 때부터 부모 없이 자라고 있는 손녀를 보고 있다면 가슴이 아리며 눈물이 울컥 솟는다.

지요. 어린 것이 집안 형편을 헤아려서 뭐 사람라고 조르지도 않는 걸 보면 대견하기도 마음이 아파요." 착하게 자란 손녀딸은 이제 복지관 봉사활동도 나가고 커서는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봉사활동을 하고 싶다고 할 정도로 속이 깊다. 그런 손녀를 위해 얼마 전 할머니는 월부로 컴퓨터를 하나 구입했다. 8만원이면 중고컴퓨터 산다고 말해왔던 손녀딸이 안스러워 무리를 한 것이다. 환한 웃음 한번 웃어보지 못하고 살아왔고, 언어장애와 다운증후군을 앓고 있는 자식을 낳아 숨쉬는 편히 못 쉬고 살아온 나날이었다. 그래서 희망같은 손녀를 위해 앞뒤 없이 일을 저질렀던 것. 월부금 갚아나 가기가 빠듯하지만 할머니는 시장에 안가는 것을 해결책으로 여기고 있다.

### 배추·파밭 돌며 주운 채소 팔아 생계 의사소통 어려운 딸 사흘 멀다 가솔



△세살살정 모르는 딸 윤자씨는 늙은 어머니의 걱정을 아는 지 모르는지 아이처럼 어리광만 부린다.

만에 돌아와 할머니 속을 태웠다. 몇 년 전만 해도 진주, 포항, 울산 등지의 파출소에서 전화가 걸려오기 일쑤였다. 길을 잃을 것에 대비해 가슴에 달아두었던 이름표를 보고 연락을 해온 것이 다. 할머니는 딸을 찾기 위한 전단도 준비해 놓았을 정도. "잠도 못자고 이 골목 저 골목 찾아 헤맬 때 마음 같아서는 돌아오면 흠뻑 두들겨 패서라도 다시는 못나가게 해야지 싶다가도 막상 일 끝만 보면 반가워서 그럴 수가 있어야지."

몇 십년을 배추밭, 파밭, 무밭 등지를 돌아다니며 상품가치가 없어 버린 채소들을 주워다 육교 앞에서 행상을 하며 지켜온 가족들. 허리가 아파 그 일마저 할 수가 없게 된 할머니 가족의 한달 수입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1종의 보조금 50여만원이 전부다. 할머니의 허리 치료는 고사하고 병원에 살다시피 하는 딸 치료와 손녀의 교육비 걱정에만 몰두하고 있어도 마음고생은 더욱 심해졌다.

"손녀가 다들 때까지 못살잖아요. 그러니 늘 그게 걱정이예요. 나 죽고나면 딸도, 손녀도 의지할 곳이 없는데..." 할머니의 다른 자식들도 없잖아 형편이 어렵거나 먼저 세상을 떠났다. 약 한번 제대로 못쳐보고 올 1월 먼저 보낸 아들 얘기에 목이 매지만 남아 있는 손녀의 앞날이 할머니 눈앞을 뿌연게 흐려놓는다.

후원 계좌: 부산은행 105-12-029693-2(예금주 김윤자)  
전화: 051)894-5408  
부산=천미희 기자

# 선무도 화랑수련회

신라 화랑정신의 고장인 경주 골굴사의 禪武道 大金剛門에서는 청소년과 일반인을 위한 수련회를 개최합니다.

- ▶ 기 간 : 2002년 7월 1일부터 2개월간 (1주, 2주, 3개월)
- ▶ 대 상 : 초등학생 이상 개인 및 단체 (불교학생회, 신영단체, 각종 사외 단체 위탁 연수)
- ▶ 수련내용 : 참선, 선요구, 선무술, 전통문화 (무용, 다도)
- ▶ 통 장 금 : 학생 (1일 - 2만 원, 1개월 - 60만원) 일반 (1일 - 3만원, 1개월 - 65만원)
- ▶ 접수문의 : TEL (054)745-0246, 744-1689 FAX (054)746-0172
- ▶ 수련비 입금계좌 : 농협 721107-52-037300 예금주 설 기준
- ▶ 준비물 : 개인 세면도구, 운동복, 운동화, 필기도구, 우산

1천 5백년전 신라시대에 창건된 골굴사의 부설 선무도 대학에서 주관하는 본 수련회는 전국에서 모인 청소년들이 대자연 속에서 불교와 선무도를 통해 심신을 단련하고 호연지기를 기르며 화랑정신을 배운다. 선기공 수련으로 정서불안과 각종 성인병, 만성병을 치료하고 가정과 학교에서 소훈한 인성교육의 효과를 얻는다.

| 일과표 |                                     |         |                       |
|-----|-------------------------------------|---------|-----------------------|
| 4시  | 가상, 예불 (참사시에는 3천배 참의 및 전 대령이 1일 불식) | 13시     | 독서와 사색                |
|     | 좌선                                  | 14시     | 오후수련 및 전통문화강습(학생)     |
| 5시  | 조강, 등산                              | 16시     | 윤락(도량 정소 및 정비작업)      |
| 6시  | 아침공양(밥우공양)                          | 18시     | 저녁공양                  |
| 7시  | 오전수련                                | 19시     | 예불후 학생은 자율학습 및 참회문 쓰기 |
| 9시  | 108배 참회기도(자아) 향안 서인)                | 19시 30분 | 저녁수련(일반인)             |
| 11시 | 점심공양                                | 21시     | 점호 및 취침               |

- 기립사, 갑은사지, 문무대왕 수증릉(봉길해수유적) 성지순례  
\* 입산 후 개인 외출, 이성교제, 술, 담배, 간식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규칙을 어길 경우, 3천배 참회 및 죽비나 회초리로 체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golgalsa.com 또는 sunmudo.com  
\* 수련회 참가자는 상해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 스님, 사부동 지도진 10명, 무용강사 4명(현직교사 및 전공자), 다도강사 2명(부산여대 다도 대학원 졸업생)

## 대한불교 조계종 11교구 골굴사 세계 선무도 협회 大金剛門 선무도 대학

# 2002학년도 불교전통의식 교육대학 신(편)입생 후기 모집

귀의삼보하옵고  
1989년 설립하여 불교의 전통의례·의식·범음(법배)를 계승·발전 시켜온 본 대학에서는 2002년도 후기 신(편)입생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배움에 어려움이 많아 맥이 끊어져 가고 있는 불교의례의식의 진흥과정과 교리가 담고 있는 뜻을 좀더 체계있게 전승발전 시키고자 범음·법배·요점 및 작법 등 예강의식 과정을 개설하였습니다. 불교의례의식에 관심있는 스님·불자님 포교사님들의 많은 문의와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 불교전통의식 교육대학 학장 해산 -

| 학 과    | 교육 내용                                  | 모집인원 | 비 고 |
|--------|--|------|-----|
| 기본교육과정 | 예강의식 및 기초교리 조·석예불, 불공의식, 시식            | 20명  | 6개월 |
| 전통교육과정 | 상주권공 및 불교의식론 49재의식 및 천도재의식 (집안 및 재공의식) | 20명  | 1년  |
| 연구과정   | 요점, 작법, 안치비 등                          | 10명  | 1년  |

- ① 모집학교
  - ② 응시 자격 : (다음 사항중 한가지 이상의 자격을 갖춘자)  
1) 수계 득도한 자 2) 오계를 수계한 자
  - ③ 전형 방법 : 서류전형 (면접)
  - ④ 합격자 발표 : 개별통지
  - ⑤ 제출 서류 : 1) 입학원서 (소정양식) 1통  
2) 수계증명서 사본  
3) 반명합판 사진 4매
- ▷ 교육시간 : 주 4회(月~木)  
▷ 접수일자 : 2002년 7월 15일 ~ 8월 19일  
▷ 개 강 : 2002년 8월 20일
- ▷ 원서 교부 및 접수처  
불교 전통의식 교육대학 교학처  
130-012 서울시 동대문구 청량리 2동 604번지  
전화 02)967-7093
- 금강불원 불교전통의식 교육대학

